



### 운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괘담(掛搭) · 입방(入房) · 방부(房付)

선종사원(총림)에서는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함께 안거할 남자(衲子, 수행승)들을 받아들인다. 하안거 때와 동안거 때인데 이것을 <선원청규>에서는 '괘담(掛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입방' 또는 '방부'라고 부른다.

'괘담(掛搭)'은 발우와 가사 등 도구를 '이가(櫛架: 걸개, 횃대에 건다)'는 뜻으로, 입방이 허락되면 수행승은 발낭(鉢囊, 걸방)을 승당 내에 설치된 이가(櫛架)와 탐구(搭勾, 옷걸이)에 걸어 두었던(掛搭) 데서 비롯된 말이다.

또 괘담(입방)을 '괘석(掛錫)'이라고도 한다. '석장(錫杖, 주장자)을 걸어 두다'는 뜻으로 행각(行脚)할 때 갖고 다니던 석장을 입방하면 3개월 동안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승당(僧堂, 좌선당, 선당) 벽에 걸어 두었던 데서 유래한다. 또 종료(衆寮, 대중방)에 들어가 함께 기거한다는 뜻에서 '입료(入寮)'라고도 하며, 총림의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입중(入衆)'이라고도 한다.

괘담 · 괘석을 우리나라에서는 '입방(入房, 용상방에 이름을 넣음)', '입방(入房, 방에 들어감. 그러나 入房의 와전인 듯 함)' 또는 '방부(榜付, 용상방에 이름을 붙이다)'라고 한다. 요즘엔 대체로 '방부들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말로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괘담이라고 한다. 선원총림의 규칙과 용어, 운용 등에 대한 법전(法典)인 청규(淸規)에도 없는 말이고, 선학사전이나 무척도총(1653-1744)의 <선림상기전>에도 없는 말이다. 특히 '방부들인다'는 말은 입방을 풀어쓴 말로서 조선 후기나 근대에 생긴 비속어이다. 발우의 비속어가 '바리때' '바루때'이고, 사찰의 비속어가 '절집'인 것처럼, 품위 없는 비속어들이 아어(雅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가 비속해지면 생각이나 행동도 비속해 지는 때가 많다.

#### 안거때마다 괘담 허용

#### '방부들인다'는 비속어

괘담(掛搭, 입방)의 절차와 과정 등은 좀 까다롭다. 요즘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2-3일 전, 심지어는 하루 전에도 가능하지만(권위 있는 선방은 두 달 전부터 해야 한다고 함), 1000년 전 당송시대에는 결제하기 15일 전에 입방절차를 마치고 승당 · 종료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므로 하안거 때는 음력 3월 30일까지, 동안거 때는 9월 30일까지는 괘담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입방할 수가 없었는데, 선원에서는 4월 1일이 되면 객승이 묵는 단과료(單過寮, 客寮)를 아예 폐쇄해 버린다(<최수백장청규> 「절랍장, 月分須知」).

그 이유를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 하안거 결제)」 장에서는 "행각승(객승)이 하안거 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모름지기 반월(半月, 15일) 전에 괘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탕(茶湯, 차)의 인사(人事)를 잘챙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다탕의 인사'란 차례인데, 새로 입방하는 수행승이 총림의 차례(茶禮), 행례(行禮)를 익히자면 적어도 안거 15일 전에는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안거는 총림의 4절(節, 하안거 결제, 해제, 동지, 정월 초하루)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 밖에도 결제 전에 소임을 정해야 하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총림에 새로 괘담(입방)하는 사람을 당송 시대에는 '신도(新到)'라고 불렀다. '새로 온 남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잠깐 머무는 객승을 '잠도(暫到)'라고 불렀다. 신도나 잠도는 일단은 모두 객승이므로 접빈 담당인 지객(知客)스님을 만나야 한다. 신도로서 입방하고자 한다면 지객에게 입방의사를 밝힌 다음 신청양식에 자신의 본명과 범명, 나이, 본사, 은사스님, 그리고 전년도 하안거에 동참했던 사찰 등을 적어서 제출한다. 그런 다음 단과료(單過寮)에서 기다린다. 단과료(單過寮)는 객실로서 '하루 묵어가는 요사'라는 뜻이다.

신도(新到, 입방할 객승)든 잠도(暫到, 잠시 머무는 객승)든 객승은 단과료에서 3일 이상을 묵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는 단과료에 온지 3일 이내에 입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잠도는 3일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입방승의 경우는 입방 절차 등 때문에 며칠 더 있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괘담은 총림이 매우 어렵거나 입방자의 행실이 몹시 불손한 경우와 가짜승, 악소문이 퍼진 남자가 아니라면 거의 입방할 수 있다. 총림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대중이 공주(共住)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과료에 머무는 것은 서류 심사 기간인 동시에 입방 의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또 입방하고자 찾아오는 수행승의 입방절차를 그 때 그 때마다 밝게 한다면 사중(寺中)이 번잡하므로 여러 명을 모아서 함께 괘담 절차를 밟고자 했던 것이다.

총림의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일단 입방이 허락되면 총림의 규율담당인 유나(維那)스님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부는 여기서 결정 나는데, 유나를 면담할 때는 입방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즉 계첩(수계첩)과 국가에서 발행하는 승려증인 도첩, 병역과 노역면제 확인서인 면정유(免丁由), 그리고 좌하유(坐夏由, 전년도 하안거 증명서)를 사부통(祠部桶, 서부통)에 넣어 갖고 지객스님의 안내로 유나실(維那室)로 향한다. 보통 3명 이상이 함께 가는 데(때마도 한 번에 9명을 넘기지 않는다), 이때 입방승 가운데서도 범람이 있는 고참(古參)이 가장 맨 앞에 선다. 신참(新參)은 입방 절차나 총림의 예절 등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고참을 '참두(參頭)'라고 하는데, 예의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참두를 필두로 신도(新到)들은 공손하게 한 줄로 서서 유나스님에게 오체투지의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신도(新到) 상간(相看, 문안입니다)"라고 한다. 새로 온(新到) 객승인데 문안드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객승으로서 입방하고자 할 때는 큰 방 앞에서 "객승 문안드리오"라고 하면 지객

# 입방 허락되면 문수상 앞 오체투지



법주사 총지선원의 2010년 동안거 입재 때 스님들이 입방하고 있다.

이 나가서 안내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다. 이어 신도(입방승)가 먼저 "오래부터 도풍이 울려 퍼지니 이곳 한 쪽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자비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유나는 "광림(光臨)함을 입어서 산문(山門)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응대한다. 이어 각자 서류를 넣은 사부통을 내밀면 유나스님은 일일이 확인한다. 특히 도첩과 면정유는 의식이 날 경우 지방 관아까지 연락해 확인했다. 이 두 서류가 가장 까짜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나의 심의가 별 이상 없이 통과되면 객승은 "온존(溫存, 친절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하고 감사의 말을 한다. 유나는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서(까다롭게 심사했으므로) 송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유나실의 시자는 "상좌(上座, 객승에 대한 존칭)는 승당으로 돌아가서(歸堂) 괘담(발낭을 걸다)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비로소 공식으로 입방이 허락된 것이다.

입방이 허락되면 괘담인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사괘담(謝掛搭, 괘담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신고)'

#### 입방시 승적관계 꼼꼼히 심사

#### 외출 후 15일 지나면 입방 무효

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유나와 함께 승당으로 올라가서 성승상(聖僧像, 僧形文殊象) 앞에서 오체투지의 3배를 해야 한다. 이 때 동행한 시자(侍者)는 두 손으로 사부통을 높이 받쳐 든다. 이어 유나는 범

람에 따라 각각 자리를 배정해 준 다음 사부통을 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방이 허락되면 전(全) 대중에게 신고(申告)하는 과정이 있다. 아침공양이 끝날 때 좀 지객스님의 안내로 큰 방으로 들어가서 조실과 주지 등 어른 스님이 앉아 있는 어간(御間)을 향하여 3배를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러면 지객스님이 입방승의 범명과 본사, 은사스님의 범호 등을 공지하는 것으로 입방절차는 끝난다. 아마 당송 때 총림의 입방절차에도 당연히 전(全) 대중에게 고(告)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승당에서 나오면 주지(방장)스님에게 괘담인사를 해야 한다. 신도(입방승)는 방장실로 가서 시자에게 "신도(新到) 화상을 배알코자합니다. 번거롭지만 여쭙어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시자는 입방승을 주지스님에게 안내한다. 역시 오체투지의 3배를 한 다음, "오래 전부터 화상의 도풍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존안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 없는 기쁨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뒤로 몇 발짝 물러나서 다시 엎드려 "화상의 존체, 기거(起居)가 만복하기를 바라나이다"하고 거듭 아뢴다. 주지는 객승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다음은 종료(衆寮, 대중방)로 가서 요주(寮主, 寮元, 종료의 책임자)에게 괘담인사를 해야 한다. 역시 "신도(新到) 상간(相看)입니다"라고 인사한 다음 3배를 한다. 요주는 새로 입방한 수행승들에게 앉는 자리와 그리고 경전을 볼 때 사용하는 책상(看讀床, 榻) 등을 지정해 준다. 종료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사괘담이 끝나면 입방승들은 총림의 모든 대중들에게 차(茶) 공양을 올린다. 이것을 '종료(衆寮)로 들어 가는 차(茶)'라는 뜻에서 '입료차(入寮茶)'라고 한다. 말하자면 대중스님들과 상견례를 겸한 '입방 신고식' 같은 것이다.

괘담(입방) 후에 대중들에게 차(茶)공양을 내는 풍습은 당대(唐代)에는 없었다. 세속적인 풍습인데, 그 명칭이 입료차(入寮茶)인 것으로 보아 송대에 생긴 풍습이라고 보여진다(종료라는 당우는 당대에는 없었고 송대에 신축된 당우임). 그런데 대중들이 보통 몇 백 명 되었으므로 운수잡자로서 배료전(陪寮錢, 차 값)을 내어 차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후대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폐지됐다. 이것은 아마 당시 관료들이 처음 출사(出仕)하면 동료 관원들에게 한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음), 이것이 점점 총림에 전이(轉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괘담(입방)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들은 외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외출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보름 이내에 귀사(歸寺)해야 한다. 이것을 청가(請假, 외출), 또는 잠가(暫假, 잠시 외출)라고 하는데, 15일이 넘으면 입방이 무효화됐다. 만일 다시 입방하고자 한다면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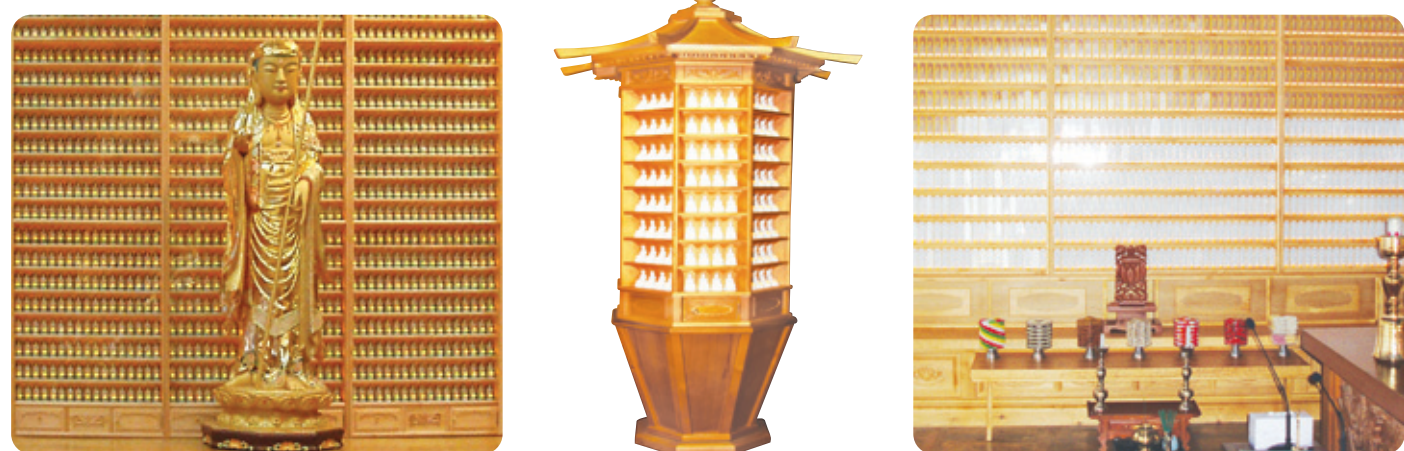
운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점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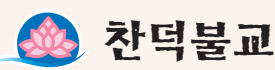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